

#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양태\*

## Young Children's Time-Use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진미정  
조교 이윤주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eejung Chin  
*Administrative Assistant* : Yoonjoo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ime-use patterns of young children and compared the patterns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status. Using 6718 time diaries of 3359 children under age 5, as reported by their mothers, this study examined (1) the proportion of children who spent time on certain activities and the amount of time they spent on each activity for a weekday and a weekend day and (2) the proportion and the amount of time that children spent with certain adults. Compared to children with unemployed mothers, children with employed mothers spent more time during weekdays in child care centers and less time sleeping. These children also spent more time on education during weekends. The proportionate and actual times children spent with various adults also differed by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Those with employed mothers spent less time with their mothers and more time with other relatives or teachers on weekday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aternal employment corresponds with differing time-use patterns from children's early life stages.

**주제어(Key Words)** :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time-use of young children), 시간일지(time diary), 어머니 취업(maternal employment status)

**Corresponding Author** : Meejung C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gu, Gwanak-ro 599, Seoul, Korea Tel: +82-2-880-1454 Fax: +82-2-873-8517 E-mail: mchin@snu.ac.kr

\* 본 연구는 보령모자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I. 서론

생활시간 연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구성과 리듬에 대한 연구이다. 생활시간 자료는 일상생활이 어떤 활동들로 채워지고, 그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생리적 활동, 노동, 여가 등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일상생활이 건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활동이 과도하게 혹은 과소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여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거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등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생활시간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1999년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시작한 후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시간 조사는 대부분 응답자의 최저 연령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핀란드, 독일, 스페인, 라트비아 등은 만 10세 이상,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은 만 15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자로 삼는다. 예외적으로 이탈리아에서만 만 3세 이상을 응답대상으로 한다(Statistics Finland, 2008).

대부분의 생활시간 조사에서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포함하지 않는 데는 방법론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보통 생활시간은 하루 일과를 기억하였다가 자세히 회고하여 시간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는데, 어린 아동들의 경우 하루 일과를 구조화하여 기억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어렵고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생활시간 자료를 얻기 힘들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난점 외에도 어린 아동의 생활세계가 어른에 비해 단순할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아동들의 생활시간 자료를 활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조사나 연구 부진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률 증가와 조기교육의 확산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주로 생활하던 미취학아동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아동들의 생활세계 역시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하게 구성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아동들의 생활세계의 구성방식이 가족이나 부모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생활시간 사용양태가 아동들의 연령이나 발달단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동들의 생활시간 사용양태가 어떻게 다른지, 아동들의 연령에 비추어볼 때 아동들의 수면시간이 적정한지, 놀이시간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있는지, 매체활용시간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아동들의 생활시간 사용양태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들의 생활과 발달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건강

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아동들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통계청 생활시간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10세 이상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들(김기현, 이경상, 2006; 류지수, 2007; 박민자, 손문금, 2007; 진미정, 2008)이며, 연구자 개인이 수집한 소규모의 자료에 토대한 연구들도 주로 초등학교에 대한 연구(강인자, 김혜연, 2005; 최남숙, 유소이, 2002)이다.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따라서 이들의 생활세계의 구성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을 조사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유아기 아동들의 일상생활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혼여성들의 취업률,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어린 자녀들의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취업을 하면 영유아기 자녀들은 할머니와 같은 대리양육자와 보내는 시간 아니면 어린이집, 놀이방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나 대리양육/시설보육 시간 외에 다른 생활시간은 어떻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도 서로 다른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지금까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중과 주말 하루씩의 시간일지를 수집하고, 각 시간대에 어떤 활동을 누구와 어디에서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물론 이 시기의 아동들은 직접 생활시간일지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가장 가까이에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어머니나 다른 주양육자의 응답을 통해 아동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아동들에 대한 생활시간 자료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아동들의 생활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시간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기 아동들의 생활시간(활동비율과 시간량)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가?
  - 1-1. 영유아기 아동들의 주중 생활시간(활동비율과 시간량)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가?
  - 1-2. 영유아기 아동들의 주말 생활시간(활동비율과 시간량)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가?

2. 영유아기 아동들의 생활시간 공유대상(활동비율과 시간량)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가?

2-1. 영유아기 아동들의 주중 생활시간 공유대상(활동비율과 시간량)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가?

2-2. 영유아기 아동들의 주말 생활시간 공유대상(활동비율과 시간량)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연구들은 주로 통계청의 자료나 연구자 개인이 수집한 소규모 자료에 의존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유아기 자녀나 미취학 연령대의 아동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자료는 없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주로 일상적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87명의 생활시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강인자와 김혜연(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생리적 시간에 10시간 54분, 학업시간에 6시간 17분, 가사시간에 26분, 교제 및 여가활동에 5시간 45분, 이동시간에 29분, 기타시간에 9분 등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성별, 학년, 통학거리, 어머니의 학력 및 취업에 따라 시간사용 패턴이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부모의 특성이 시간사용 패턴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부모의 생활지도가 여가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전국적 규모의 자료인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기현과 이경상(2006) 및 김기현,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과 최동선(200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기현 외(2009, pp. 45-56)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사용양태를 외국의 청소년들과 국제적으로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유럽이나 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월등 높았다. 15-24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4시간 55분인데, 이는 미국의 청소년보다는 하루 평균 2시간 5분이 많고, 영국의 청소년보다는 4시간 5분이나 많은 것이다. 이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2-18세 청소년들만 보면,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이 넘고, 고3(18세)의 경우에는 하루 11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면시간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청소년들에 비해 하루 평균 1시간 정도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한 외국의 연구에는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보충주제 조사로 이루어진 Child Development Supplementary의 Time Diary 조사가 있다. PSID-CDS는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1997년 당시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아이들이 5-18세가 된 2002-2003년 시점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도 주로 학령기와 청소년기 아동에 대한 주제, 예를 들어 가족시간, 미디어사용이나 방과 후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Crosnoe & Trinitapoli, 2008; Folbre, Yoon, Finnoff, & Fuligni, 2005; Hofferth, 2003; Sandberg & Hofferth, 2001),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 2.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생활양식

어머니와 자녀의 일상생활 패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혼기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가족생활은 급격하게 달라진다. 직접적인 돌봄과 개입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자녀 중심의 생활패턴을 가지게 되고, 생활시간 중 많은 부분을 자녀돌보기에 사용한다.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 주로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집중하는 생활패턴으로 인해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되는 경향이 크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이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문혁준, 2005).

영유아기 자녀의 존재와 어머니의 취업은 상호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영유아기 자녀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유연성과 융통성을 요구하는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적 보육서비스만으로 양육을 대리하기는 쉽지 않다. 여성들의 취업률을 연령별로 비교해볼 때,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할 시기인 30-34세의 경제활동참여율(51.9%)이 그 전후시기에 비해 더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2009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5-29세에 69.0%, 35-39세에 56.3%, 40-44세에 65.4%임, 통계청, www.kostat.go.kr). 직장이 있어서 일을 하다가 출산을 한 여성들 중에서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노동연구원의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이규용, 남재량, 박혁, 김은지, 2004, p. 102)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의 35%가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선택한다.

어머니의 취업이나 근무조건이 영유아기 자녀의 일상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방식이나 태도, 남편과의 양육분담, 자녀들의 발달 상황 등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김

정희, 문혁준, 2006; 장영은, 2006).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들은 영유아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동안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취업한 어머니들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대체할 다른 양육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자녀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식,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주로 하는 활동 등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도 대리양육을 하는 방식은 자녀의 발달단계, 어머니의 근무조건, 가용한 사적 자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근무조건이 유사하더라도 영아기 아동들은 친인척이나 양육도우미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많고, 유아기 아동들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유치원 등 시설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많다(이완정, 2009). 대리양육 방식이 달라지면 영유아기 아동들의 생활양식도 달라지는데, 대체로 기관이나 시설을 통한 양육은 가정 내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육에 비해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나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자며,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유아기 아동들이 구조화된 생활을 하기 쉽다.

다른 한 편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영유아기 아동들이 좀 더 다양한 놀이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전업주부인 어머니들도 자녀들이 집에서 어머니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보육기관에 시간제로 다니거나, 아니면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배지희, 황인애, 탁옥경, 2007). 자녀가 유아기에 접어들면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증가한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0세아, 1세아, 2세아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율은 각각 3.2%, 13.3%, 31.0%이다. 그러나 만3세아, 4세아, 5세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53.3%, 62.1%, 77.0%로 급격히 높아진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상관없이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다(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2005, p. 61).

생활시간 연구 중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유아기 자녀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없지만, 어머니 자신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있다. 취업주부나 맞벌이부부에 대한 연구들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고 여가시간이 짧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손문금, 2003; 채로, 이기영,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취업한 어머니들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2004년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미취학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이영환과 이수재(2007)의 연구에 따르면 미취학 연령대의 자

녀가 있는 어머니들 중 취업한 어머니들은 가족보살피기에 하루 평균 2시간을 사용하며,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들은 4시간 6분을 사용한다. 가족보살피기 중에서도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취업주부가 16분, 비취업주부가 57분이다. 직장일과 가사를 포함하여 총 일한 시간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해볼 때,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취업주부들이 비취업주부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취업주부가 각각 8시간 15분, 6시간 56분 일하는 것에 비해 비취업주부는 4시간 52분, 4시간 6분을 일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주부)의 관점에서 취업한 어머니들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가 비취업 어머니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들의 생활시간 사용양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실제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취업한 어머니가 하루 평균 2시간을 가족돌보기에, 하루 평균 16분을 미취학자녀 돌보기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녀 한 명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식구수가 많거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한 명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를 분석단위로 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양태의 차이를 비교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유아기 아동들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양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만 60개월 이하 아동을 한 명 이상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학협동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유아용품 전문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무선 표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 2. 조사방법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 조사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일지(time-diary)를 인터넷으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들에게 해당연령의 자녀를 한 명만 정하게 한 후, 주어

진 양식에 따라 주중과 주말 각 하루씩을 선택하여 자녀가 24시간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활동별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입하고, 누구와 함께 그 활동을 하였는지, 활동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지, 어느 장소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의 편의를 위해 6개의 대분류, 20개의 중분류, 80개의 소분류로 구분된 활동코드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코드 분류는 통계청 분류를 일차적으로 참고하되, 인터넷 조사라는 특성과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통계청 분류보다 단순하게 구성되었다.<sup>1)</sup> 통계청 분류에 있는 일, 학습,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 활동 등의 분류는 영유아 아동들의 생활시간과 관련이 적으므로 삭제하고, 대신 (1) 일상적 행동(잠자기, 식사, 위생, 휴식 등 개인유지 시간), (2) 교육(한글, 예능 등의 학습시간), (3) 놀이(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장난감 없이 놀기, 매체 이용, 문화 활동, 나들이, 어른활동 따라가기 등), (4)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서 보낸 시간 혹은 양육도우미와 보낸 시간, (5) 이동(목적지에 상관없이 하루 중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한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 (6) 기타(그 외 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의 6개 대분류로 구성되었다.<sup>2)</sup> 이러한 코드 분류는 연구자들이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한 후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와 중분류 중에서 영유아기 아동들의 생활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범주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간일지 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종, 근무형태, 현재 함께 사는 사람, 월평균 가구소득, 자가 소유 여부, 각 자녀의 월령 및 성별을 함께 조사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만 나이를 쓰게 하였고, 교육수준은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수료 및 졸업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직종은 ① 전업주부 ② 전문기술직 ③ 사무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직 ⑥ 자영업 ⑦ 기타로 조사하였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전업주부 대신 무직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근무형태는 전일제와 시간제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현재 함께 사는 사람은 ① 배우자 ② 본인 부모님 ③ 배우자의 부모님 ④ 자녀 ⑤ 다른 친척 ⑥ 아이돌보는 사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1만원-200만원 ③ 201만원-300만원 ④ 301만원-400만원 ⑤ 401만원-500만원 ⑥ 501만

원-700만원 ⑦ 701만원-900만원 ⑧ 901만원 이상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2008년 9월 3일부터 19일까지 21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내용상의 오류나 분류체계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 조사를 틀을 구현하여 2008년 10월 30-31일 이틀에 걸쳐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총 3,359명의 아동의 주중 하루와 주말 하루에 대한 시간일지 총 6,718개를 수집하였다.

### 3. 분석방법

생활시간 양태 분석을 위하여 주 활동을 코드별로 모아서 행위자 비율과 전체 시간량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행위자 비율은 해당 활동을 10분 이상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면이나 식사의 경우 행위자 비율이 거의 100%이고 이 경우에는 평균값이 전체 평균을 대표하는 통계치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위자 비율이 낮은 활동, 예를 들어 나들이, 교육 활동 등의 전체 평균 시간량은 평균으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행위를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시간량의 평균을 계산하고 행위자 비율과 함께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행위자 비율이 10%이고 평균 시간량이 1시간 20분인 경우에는 해당 연령의 아동 중 10%만이 그 활동을 하였고, 활동을 한 아동들이 소요한 시간이 1시간 20분이라는 의미이다. 분석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만0세(12개월 미만), 만1-2세(12-36개월 미만), 만3-4세(36-60개월 이하)로 구분하여 세 집단의 생활시간 양태를 주중과 주말,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t 검정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60개월 이하의 영유아기 아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을 아동의 월령에 따라 비교하였으므로 어머니들의 특성도 자녀의 월령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0세 아동의 어머니들의

1) 통계청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는 9개의 대분류, 47개의 중분류, 275개의 소분류 코드를 사용한다. 9개의 대분류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이다.  
2) 이 중에서 어린이집/양육도우미와 보낸 시간은 그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전체 시간량만 조사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양육도우미와 시간을 보낸 영유아들의 활동 별 시간량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조사에서도 학교나 학원, 직장에서 보낸 시간은 총량만을 조사한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세, 개월, %)

| 구분               | 만0세<br>(N = 1251) | 만1-2세<br>(N = 1538) | 만3-4세<br>(N = 570) |
|------------------|-------------------|---------------------|--------------------|
| 어머니의 평균 연령       | 29.5 (3.3)        | 30.6 (3.3)          | 32.3 (3.2)         |
| 자녀 평균 월령         | 6.8 (2.8)         | 21 (6.9)            | 45.9 (6.9)         |
| 어머니의<br>취업여부     | 전업모               | 914 (74.0)          | 1102 (71.7)        |
|                  | 취업모               | 337 (26.0)          | 436 (28.3)         |
| 어머니의<br>학력       | 고졸이하              | 263 (21.0)          | 320 (20.8)         |
|                  | 대졸이상              | 988 (79.0)          | 1218 (79.2)        |
| 가구소득<br>(배우자 포함) | 200만원 이하          | 332 (26.5)          | 342 (22.2)         |
|                  | 201만원-400만원       | 693 (55.4)          | 854 (55.5)         |
|                  | 401만원 이상          | 226 (18.1)          | 342 (22.3)         |

〈표 2〉 본 연구 표본과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표본 비교

(단위: 명, 세, %)

| 구분               | 본 연구표본               |                    | 아동청소년실태조사 표본     |                  |
|------------------|----------------------|--------------------|------------------|------------------|
|                  | 만 2세미만<br>(N = 2789) | 만3세이상<br>(N = 570) | 영아<br>(N = 1080) | 유아<br>(N = 1059) |
| 어머니 평균연령         | 30.1 (3.3)           | 32.3 (3.2)         | 31.9 (4.15)      | 33.9 (4.06)      |
| 어머니의<br>학력       | 고졸이하                 | 583 (20.9)         | 137 (24.0)       | 608 (41.6)       |
|                  | 대졸이상                 | 2206 (79.1)        | 433 (76.0)       | 472 (58.4)       |
| 가구소득<br>(배우자 포함) | 200만원 이하             | 764 (24.2)         | 87 (15.3)        | 474 (19.5)       |
|                  | 201만원-400만원          | 1547 (55.5)        | 332 (58.2)       | 488 (64.9)       |
|                  | 401만원 이상             | 568 (20.4)         | 151 (26.5)       | 110 (15.6)       |

〈표 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단위: 명, 세, 개월, %)

| 구분               | 전업모<br>(N = 2407) | 취업모<br>(N = 952) | t / $\chi^2$ |
|------------------|-------------------|------------------|--------------|
| 어머니의 평균 연령       | 30.2 (3.5)        | 31.1(3.2)        | -7.47***     |
| 자녀 평균 월령         | 19.85 (14.5)      | 20.82 (14.9)     | -1.74        |
| 어머니의 학력          | 고졸이하              | 604 (25.1)       | 116 (12.2)   |
|                  | 대졸이상              | 1803 (74.9)      | 836 (87.8)   |
| 가구소득<br>(배우자 포함) | 200만원 이하          | 686 (28.5)       | 75 (7.9)     |
|                  | 201만원-400만원       | 1481 (61.5)      | 398 (41.8)   |
|                  | 401만원 이상          | 240 (10.0)       | 479 (50.3)   |

\*\*\*  $p < .001$

평균 연령은 29.5세이며, 만1-2세 아동의 어머니는 평균 30.6세, 만3세 이상 아동의 어머니 평균 연령은 32.3세이다. 조사대상이 된 아동의 평균 월령은 각각 6.8개월, 21개월, 45.9개월이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응답자의 약 80%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만0세 아동 어머니들의 74%, 만1-2세 아동 어머니들의 72%, 만3-4세 아동 어머니의 69%는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이다. 가구소득은 201-4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나 자녀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소득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수집된 것이 아니므로 아동인구의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2009 한국아동청소년실태조사의 표본 특성과 비교해보았다.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자료에서는 아동의 구체적인 월령은 조사되지 않았고 36개월 미만의 영아와 37-71개월 사이의 유아 여부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확한 비교는 되지 않지만 대략의 차이점은 파악할 수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 부모 모두 평균 연령은 다소 낮고, 학력수준이 더 높은 편이다. 가구소득의 경우,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영아집단에서는 가구소득이 더 낮고, 유아집단에서는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해석 시 이러한 특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취업한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약 1세 많았고, 대학졸업자 비율도 약 13%p 더 높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취업모는 맞벌이가 많아서 50% 정도

〈표 4〉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중 활동 비율과 시간량: 12개월 미만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1251) |       | 전업모(N = 914) |       | 취업모(N = 337)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잠자기           | 99.9         | 11:17 | 100.0        | 11:23 | 99.7         | 11:00 | 2.19*   |
| 낮잠자기          | 75.6         | 2:43  | 76.0         | 2:43  | 74.5         | 2:43  | -0.06   |
| 식사/간식         | 98.8         | 2:46  | 98.5         | 2:41  | 99.7         | 3:01  | -3.07** |
| 개인위생 관리       | 74.2         | 0:55  | 74.8         | 0:54  | 72.4         | 0:58  | -1.22   |
| 교육            | 9.5          | 1:15  | 10.4         | 1:13  | 7.1          | 1:25  | -1.04   |
| 장난감 없이 놀기     | 65.3         | 2:30  | 66.4         | 2:33  | 62.3         | 2:20  | 1.68    |
| 장난감 놀이        | 70.7         | 3:00  | 71.2         | 2:59  | 69.1         | 3:01  | -0.20   |
| 매체 이용         | 9.3          | 1:13  | 11.1         | 1:10  | 4.5          | 1:33  | -1.80   |
| 운동/나들이        | 20.8         | 1:31  | 21.2         | 1:29  | 19.9         | 1:38  | -1.02   |
| 어른활동 따라가기     | 5.1          | 1:50  | 5.3          | 1:56  | 4.7          | 1:31  | 1.25    |
| 어린이집/도우미 이동하기 | 3.5          | 6:35  | 2.2          | 4:39  | 7.1          | 8:12  | -3.29** |
| 이동하기          | 32.5         | 1:32  | 34.1         | 1:33  | 28.2         | 1:30  | 0.28    |

\*  $p < .05$ , \*\*  $p < .01$

〈표 5〉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중 활동 비율과 시간량: 만1-2세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1538) |       | 전업모(N = 1102) |       | 취업모(N = 436)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잠자기           | 99.9         | 10:23 | 99.9          | 10:32 | 100.0        | 9:58  | 5.54***  |
| 낮잠자기          | 72.4         | 2:04  | 73.6          | 2:05  | 69.3         | 2:02  | 0.78     |
| 식사/간식         | 99.8         | 2:48  | 99.9          | 2:49  | 99.5         | 2:44  | 1.11     |
| 개인위생 관리       | 80.0         | 1:02  | 80.2          | 1:03  | 79.6         | 1:00  | 0.96     |
| 교육            | 30.3         | 1:19  | 32.2          | 1:18  | 25.2         | 1:22  | -0.74    |
| 장난감 없이 놀기     | 48.4         | 1:41  | 49.6          | 1:42  | 45.4         | 1:37  | 0.83     |
| 장난감 놀이        | 92.8         | 2:55  | 92.7          | 2:54  | 93.1         | 2:58  | -0.54    |
| 매체 이용         | 47.9         | 1:27  | 50.6          | 1:29  | 41.1         | 1:20  | 1.79     |
| 운동/나들이        | 34.3         | 1:35  | 33.3          | 1:33  | 36.9         | 1:39  | -1.02    |
| 어른활동 따라가기     | 10.3         | 1:37  | 10.5          | 1:37  | 9.6          | 1:37  | -1.02    |
| 어린이집/도우미 이동하기 | 15.2         | 6:19  | 9.8           | 5:34  | 28.7         | 6:59  | -4.03*** |
| 이동하기          | 48.3         | 1:19  | 47.8          | 1:22  | 49.5         | 1:09  | -0.76    |

\*\*\*  $p < .001$

〈표 6〉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중 활동 시간량: 만3-4세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570) |       | 전업모(N = 391) |       | 취업모(N = 179)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잠자기           | 100.0       | 9:52  | 100.0        | 10:07 | 100.0        | 9:20  | 3.39*** |
| 낮잠자기          | 21.4        | 1:43  | 21.0         | 1:44  | 22.3         | 1:39  | 0.67    |
| 식사/간식         | 99.7        | 2:11  | 100.0        | 2:13  | 98.9         | 2:07  | 1.10    |
| 개인위생 관리       | 89.3        | 1:18  | 90.5         | 1:18  | 86.6         | 1:18  | 0.00    |
| 교육            | 65.3        | 1:30  | 66.5         | 1:25  | 62.6         | 1:31  | -1.50   |
| 장난감 없이 놀기     | 25.4        | 1:09  | 26.1         | 2:08  | 24.0         | 1:53  | 0.45    |
| 장난감 놀이        | 84.0        | 2:05  | 85.7         | 2:54  | 80.4         | 2:58  | 0.77    |
| 매체 이용         | 57.0        | 1:25  | 58.0         | 1:33  | 54.7         | 1:46  | 4.13*** |
| 운동/나들이        | 23.5        | 1:23  | 24.5         | 1:21  | 21.2         | 1:27  | -0.52   |
| 어른활동 따라가기     | 3.2         | 2:02  | 3.1          | 2:10  | 3.4          | 1:45  | 0.45    |
| 어린이집/도우미 이동하기 | 69.3        | 6:08  | 63.1         | 5:57  | 82.7         | 6:26  | -1.95   |
| 이동하기          | 52.3        | 1:02  | 50.6         | 1:06  | 55.9         | 0:55  | 1.56    |

\*\*\*  $p < .001$

가 401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반면, 전업모는 201-400만원 사이의 소득이 가장 많았다.

## 2. 영유아기 아동의 주중 활동 별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영유아기 아동의 주중 활동 별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은 월령에 따라 <표 4>, <표 5>, <표 6>에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만 0세아를 살펴보면, 행위자 비율이 90%가 넘는 활동, 다시 말해 거의 모든 아동들이 빠짐없이 한 활동은 수면과 식사이고 각각 하루 평균 11시간 17분과 2시간 46분을 사용하였다. 수면과 식사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한 활동(응답아동의 70% 이상이 한 활동)은 낮잠 자기, 씻기(위생관리), 장난감가지고 놀기이며, 각각 2시간 43분, 55분, 3시간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 비율이 높은 활동은 장난감 없이 놀기(65.3%), 이동하기(32.5%), 운동/나들이(20.8%)이다. 행위자 비율이 가장 낮은 활동은 어린이집/양육도우미와 함께 있기(3.5%)와 어른활동 따라가기(5.1%)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영역을 보면, 먼저 전업모 자녀의 수면시간이 11시간 23분, 취업모 자녀의 수면시간이 11시간으로 취업모 자녀의 수면시간이 더 짧았다. 반면 식사시간은 취업모 자녀가 3시간 1분, 전업모 자녀가 2시간 41분을 사용하여 취업모 자녀가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양육도우미와 함께 보낸 비율과 시간은 취업모 자녀가 더 많았는데, 취업모 자녀의 7.1%가 대리양육자와 시간을 보내었고, 그 때의 평균시간은 8시간 12분이었다.

만1-2세 아동의 경우, 행위자 비율이 90%이상인 활동은 수면, 식사, 장난감 놀이이며, 그 다음으로 행위자 비율이 높은 활동은 낮잠과 위생관리이다. 응답자의 40% 이상이 한 활동은 장난감없이 놀기, 매체이용, 이동하기이다. 만1-2세 아동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10시간 23분이며, 식사시간은 2시간 48분이다. 만0세 아동에 비해 밤에 자는 시간이 약 54분 정도 적고, 식사에 사용하는 시간은 비슷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수면과 대리양육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다. 전업모의 아동이 야간에 평균 10시간 32분 잠을 잔 것에 비해, 취업모의 아동은 9시간 58분 잠을 잔 것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34분 정도 수면시간이 적었다. 또한 전업모 아동의 9.8%만이 어린이집이나 대리양육자와 시간을 보낸 것에 비해, 취업모 아동의 28.7%가 어린이집이나 대리양육자와 시간을 보냈고, 보낸 시간도 약 2배 정도 되었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행위자 비율이 약 90% 이상인 활동은 수면, 식사, 개인위생활동이며, 각각 9시간 52분, 2시간 11분, 1시간 18분을 사용하였다. 야간 수면시간만 본다면, 만1-2세 아동에 비해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약 31분이 더 적다. 그 외 절반 이상의 아동이 한 활동은 장난감놀이, 어린이

집/양육도우미, 교육, 매체 이용, 이동하기의 순으로 많았다. 어머니의 취업에 관계없이 약 70%의 아동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을 다니고 있고 하루 평균 6시간 정도를 보낸다. 또한 약 65%의 아동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는 것은 야간 수면시간과 매체 이용 시간이었었는데, 취업모 자녀의 수면시간이 평균 47분 적었으며, TV, 인터넷 등의 매체 이용시간은 평균 13분이 더 많았다. 나머지 활동 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만0세아나 만1-2세아의 경우에는 수면과 같은 생리적 활동시간과 대리양육되는 시간의 양에서, 만3-4세아는 수면시간과 TV, 인터넷 등 매체이용 시간에서 차이가 났다. 취업모의 자녀들은 전업모 자녀에 비해 신생아 때부터 평균 수면시간이 짧으며 식사시간은 다소 긴 편이다. 만3세가 넘으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대리양육되는 시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 3. 영유아기 아동의 주말 활동 별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

이번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영유아기 아동의 주말 활동 별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을 살펴보았다.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취업한 어머니들도 대체로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실제 아동들의 생활시간 사용양태를 통해 볼 때도 이를 뒷받침한다. 만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주말 동안의 활동 중 장난감없이 놀기, 운동/나들이, 어른활동 따라가기, 이동하기 등의 활동은 주중에 비해 행위자 비율이 더 높은 반면, 교육, 장난감 놀이, 어린이집/양육도우미 비율은 더 낮았다. 각 활동을 한 아동들의 평균 시간은 야간 수면시간이 약 17분 정도 더 길고 대신 낮잠시간은 15분 정도 더 짧았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논 시간은 약 13분 더 짧은 대신 매체이용시간은 약 10분 정도 더 길었다. 어른활동 따라가기는 약 40분 정도 더 길었다. 만0세아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만1-2세 아동의 경우에도 주중과 주말 활동의 차이는 주로 생리적 시간 사용 패턴과 놀이 및 교육 패턴에서 나타났다. 주중에 비해 주말에는 야간 수면시간이 더 길고 낮잠자는 시간은 더 짧다. 장난감없이 놀기, 운동/나들이, 어른활동 따라가기, 이동하기의 행위자 비율이 더 높고, 장난감 놀이, 매체이용, 교육, 어린이집활동 비율은 더 낮았다. 주말에 행위자 비율이 증가한 활동들은 평균 소요시간도 주중에 비해 더 길었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차이는 주로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에서 나타났는데, 전업모 아동의 주말 수면시간이 5분 미만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취업모 아동의 주말 수면시간은 약 22분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말에도 취업모 자녀의



〈표 7〉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말 활동 시간량: 12개월 미만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1251) |       | 전업모(N = 914) |       | 취업모(N = 337)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잠자기           | 99.9         | 11:34 | 99.9         | 11:32 | 100.0        | 11:42 | -0.76 |
| 낮잠자기          | 72.1         | 2:28  | 73.2         | 2:29  | 69.1         | 2:25  | -0.61 |
| 식사/간식         | 99.1         | 2:38  | 98.9         | 2:36  | 99.7         | 2:26  | -1.81 |
| 개인위생 관리       | 76.9         | 1:02  | 76.5         | 1:02  | 78.0         | 1:02  | 0.00  |
| 교육            | 4.4          | 1:15  | 4.6          | 1:15  | 3.9          | 1:13  | 0.20  |
| 장난감 없이 놀기     | 67.8         | 2:37  | 69.4         | 2:37  | 63.5         | 2:39  | -0.23 |
| 장난감 놀이        | 61.8         | 2:47  | 61.8         | 2:45  | 62.0         | 2:51  | -0.57 |
| 매체 이용         | 10.0         | 1:23  | 10.8         | 1:18  | 7.7          | 1:40  | -1.73 |
| 운동/나들이        | 22.2         | 1:53  | 21.4         | 1:57  | 24.3         | 1:46  | 1.17  |
| 어른활동 따라가기     | 12.2         | 2:30  | 11.9         | 2:32  | 13.1         | 2:24  | 0.50  |
| 어린이집/도우미 이동하기 | 0.4          | 4:12  | 0.1          | 4:00  | 1.2          | 4:15  | -0.09 |
| 이동하기          | 48.4         | 1:47  | 48.6         | 1:49  | 47.8         | 1:43  | 0.78  |

〈표 8〉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말 활동 시간량: 만 1-2세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570) |       | 전업모(N = 1102) |       | 취업모(N = 436)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잠자기           | 99.9        | 10:31 | 99.9          | 10:36 | 100.0        | 10:20 | 2.55**  |
| 낮잠자기          | 70.5        | 1:59  | 70.2          | 1:58  | 71.3         | 2:02  | -1.12   |
| 식사/간식         | 99.9        | 2:51  | 99.9          | 2:49  | 99.8         | 2:56  | -2.06** |
| 개인위생 관리       | 83.6        | 1:11  | 82.9          | 1:13  | 85.3         | 1:07  | 1.48    |
| 교육            | 11.8        | 1:15  | 11.2          | 1:18  | 13.5         | 1:10  | 1.06    |
| 장난감 없이 놀기     | 55.2        | 1:38  | 55.7          | 1:59  | 53.9         | 1:56  | 0.49    |
| 장난감 놀이        | 85.2        | 2:36  | 83.9          | 2:34  | 88.3         | 2:42  | -1.40   |
| 매체 이용         | 45.6        | 1:32  | 47.1          | 1:34  | 41.7         | 1:27  | 1.31    |
| 운동/나들이        | 42.9        | 1:56  | 41.4          | 1:55  | 46.8         | 1:59  | -0.71   |
| 어른활동 따라가기     | 19.9        | 2:04  | 20.1          | 2:02  | 19.5         | 2:11  | -0.94   |
| 어린이집/도우미 이동하기 | 1.0         | 3:31  | 0.5           | 4:00  | 2.3          | 3:15  | 0.55    |
| 이동하기          | 62.9        | 1:44  | 62.8          | 1:46  | 63.3         | 1:38  | 1.45    |

\*\* p < .01

〈표 9〉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말 활동 시간량: 만 3-4세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570) |       | 전업모(N = 391) |       | 취업모(N = 179)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잠자기           | 100.0       | 10:29 | 100.0        | 10:34 | 100.0        | 10:18 | 1.60   |
| 낮잠자기          | 33.5        | 1:45  | 30.2         | 1:45  | 40.8         | 1:46  | -0.11  |
| 식사/간식         | 99.8        | 2:45  | 99.7         | 2:44  | 100.0        | 2:48  | -0.73  |
| 개인위생 관리       | 90.4        | 1:18  | 91.0         | 1:16  | 88.8         | 1:22  | -0.91  |
| 교육            | 33.0        | 1:17  | 31.9         | 1:10  | 35.2         | 1:31  | -2.70* |
| 장난감 없이 놀기     | 35.6        | 1:50  | 35.8         | 1:53  | 35.2         | 1:53  | 0.83   |
| 장난감 놀이        | 81.2        | 2:23  | 82.6         | 2:21  | 78.2         | 2:29  | -0.91  |
| 매체 이용         | 67.0        | 1:50  | 68.0         | 1:52  | 64.8         | 1:46  | 0.69   |
| 운동/나들이        | 46.0        | 2:11  | 41.7         | 2:19  | 55.3         | 1:56  | 2.28*  |
| 어른활동 따라가기     | 13.9        | 2:11  | 13.3         | 2:13  | 15.1         | 2:09  | 0.22   |
| 어린이집/도우미 이동하기 | 3.7         | 4:42  | 3.6          | 5:14  | 3.9          | 3:38  | 1.65   |
| 이동하기          | 67.0        | 1:45  | 66.2         | 1:47  | 68.7         | 1:42  | 0.67   |

\* p < .05

수면시간이 전업모 자녀의 수면시간보다 여전히 더 짧았다. 식사시간의 경우 취업모 자녀는 7분 길어졌으며, 전업모 자녀가 사용한 식사시간보다 더 많았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주말 수면시간이 10시간 29분으로 주중에 비해 37분 더 많았고, 식사시간도 주중에 비해 34분이 더 많았다. 영아들과 달리 만3-4세 아동들은 모든 종류의 놀이 활동 시간이 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운동 및 나들이 시간이 48분, 장난감없이 놀기 시간이 41분으로 증가폭이 큰 편이었다. 교육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주중 65.3%에서 주말 33%로 감소하였는데, 교육활동을 한 아동들의 시간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보면, 전업모 자녀의 수면시간이 27분 증가한 것에 비해 취업모 자녀의 수면시간은 58분 증가하여 주말의 수면시간 총량에는 서로 차이가 없게 되었다. 취업모 자녀들은 주말에도 교육활동을 하는 행위자 비율이 전업모 자녀에 비해 높았으며, 평균 소요시간도 더

많았다. 운동이나 나들이 활동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운동이나 나들이를 하는 행위자 비율은 취업모 자녀에게서 더 높은 반면 소요시간은 전업모 자녀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만0세아의 경우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양태는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차이가 없고, 만1-2세아의 경우에는 생리적 시간 사용 방식에서, 만3-4세아의 경우에는 놀이 및 교육시간 사용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서 취업모 자녀들의 교육시간과 나들이 시간이 약간 더 길었다.

4. 영유아기 아동의 주중 함께 한 사람의 비율과 시간량

아동들이 주중에 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에 요약되어있다. 영유아기 아동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보낸 시간이 가장 많지만 아동들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와 보낸 시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0세아의 경우 거의 하루 종일 어머니와 활동

<표 10>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중 함께 한 사람의 비율과 시간량 : 12개월 미만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1251) |       | 전업모(N = 914) |       | 취업모(N = 337)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엄마     | 99.0         | 21:21 | 99.7         | 22:19 | 97.0         | 18:41 | 10.23*** |
| 아빠     | 27.3         | 2:32  | 27.7         | 2:32  | 26.1         | 2:32  | -0.01    |
| 조부모/친척 | 16.9         | 6:57  | 10.7         | 3:34  | 33.8         | 9:51  | -8.54*** |
| 교사/도우미 | 6.1          | 8:32  | 2.6          | 5:04  | 15.4         | 10:09 | -4.86*** |
| 혼자     | 8.2          | 4:11  | 9.0          | 4:08  | 5.9          | 4:21  | -0.21    |

\*\*\* p < .001

<표 11>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중 함께 한 사람의 비율과 시간량 : 만 1-2세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1538) |       | 전업모(N = 1102) |       | 취업모(N = 436)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엄마     | 97.2         | 19:50 | 99.3          | 21:35 | 92.0         | 15:04 | 19.84***  |
| 아빠     | 30.3         | 2:09  | 30.8          | 2:00  | 29.1         | 2:30  | -1.56     |
| 조부모/친척 | 21.3         | 9:05  | 10.3          | 4:19  | 49.3         | 11:35 | -10.43*** |
| 교사/도우미 | 19.8         | 6:47  | 12.5          | 6:03  | 38.3         | 8:13  | -8.50***  |
| 혼자     | 11.7         | 2:58  | 13.3          | 3:01  | 7.6          | 2:45  | 0.44      |

\*\*\* p < .001

<표 1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중 함께 한 사람의 비율과 시간량 : 만 3-4세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570) |       | 전업모(N = 391) |       | 취업모(N = 179)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엄마     | 97.9        | 15:48 | 99.5         | 17:19 | 94.4         | 12:19 | 11.90*** |
| 아빠     | 33.5        | 2:34  | 31.5         | 2:05  | 38.0         | 3:26  | -2.77**  |
| 조부모/친척 | 17.9        | 5:40  | 7.9          | 3:42  | 39.7         | 6:31  | -2.92**  |
| 교사/도우미 | 73.5        | 6:36  | 67.8         | 5:55  | 86.0         | 7:45  | -6.97*** |
| 혼자     | 12.5        | 2:09  | 15.3         | 2:14  | 6.1          | 1:47  | 0.49     |

\*\* p < .01, \*\*\* p < .001

을 같이 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비해, 아버지와 10분 이상 지속되는 활동을 같이한 비율은 27%에 불과하고 활동시간도 2시간 32분에 불과하였다. 약 70%의 신생아들은 아버지와 10분 이상 지속되는 활동을 같이 한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부모 외에 시간을 같이 보낸 비율이 높은 대상은 조부모나 친척이며 약 17%의 아동들이 조부모나 기타 친척과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만0세아의 경우에도 약 8%는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자거나 활동을 한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서 보면,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취업모의 자녀들은 어머니와 보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조부모나 어린이집 교사 등 대리양육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 자녀의 약 34%는 할머니나 다른 친척과 하루 10시간 가까이 지내며, 또 다른 15%는 어린이집 교사나 다른 양육도우미와 하루 10시간 정도를 함께 보낸다.

만1-2세아의 경우에는 만0세아에 비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간 더 적고, 부모 외 대리양육자와 함께 하거나 혼자 하는 활동 비율과 시간량은 더 많다.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활동을 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하였고 활동시간은 약 2시간 9분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보면, 만0세아와 마찬가지로 취업모의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량은 더 적고 다른 대리양육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량은 더 많았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량은 차이가 없었다.

만3-4세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보낸 시간량이 더 짧아져서 평균 15시간 48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버지와 함께 활동을 한 아동의 비율은 약 34%였으며, 시간량은 2시간 34분이었다. 전체 아동의 약 74%가 교사나 양육도우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으며 혼자 활동을 한 비율도 약 13% 정도 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비교해보면, 취업모 자녀가 엄마와 함께 한 시간은 전업모 자녀에 비해 3시간 정도 더 적고, 아빠와 함께 한 활동이 있다고 한 아이들의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더 많았다. 할머니 등 친인척과 함께 한 비율과 시간량은 취업모 자녀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 함께 한 활동비율은 두 집단 모두 높은 편이었으나(전업모 자녀 68%, 취업모 자녀 86%), 시간량은 취업모 자녀가 1시간 50분 정도 더 많았다. 즉, 만3-4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비율은 어머니 취업과 관계없이 둘 다 높지만, 어머니가 취업한 아이들이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영유아기 아동의 주말 함께 한 사람의 비율과 시간량

아동들이 주말에 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3>, <표 14>, <표 15>에 요약되어있다. 주중과는 달리 주말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의 패턴은 월령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엄마와 보내는 시간량은 줄어들고 아빠와 보내는 시간은 늘어나며,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나 혼자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전업모와 취업모의 자녀를 비교해 볼 때, 만0세아의 경우에는 아빠와 보내는 시간, 조부모나 친척과 보내는 시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주말에는 전업모 자녀가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더

<표 13>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말 함께 한 사람의 비율과 시간량 : 12개월 미만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1251) |       | 전업모(N = 914) |       | 취업모(N = 337)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엄마     | 99.5         | 21:18 | 99.7         | 21:20 | 98.8         | 21:10 | 0.61    |
| 아빠     | 41.1         | 3:51  | 40.7         | 4:03  | 42.1         | 3:21  | 2.07*   |
| 조부모/친척 | 19.2         | 4:26  | 17.9         | 3:45  | 22.6         | 5:54  | -2.69** |
| 교사/도우미 | 1.3          | 6:13  | 0.7          | 5:13  | 3.0          | 6:49  | -0.57   |
| 혼자     | 6.2          | 3:10  | 7.2          | 3:09  | 3.6          | 3:18  | -0.12   |

\* p < .05, \*\* p < .01

<표 14>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말 함께 한 사람의 비율과 시간량 : 만 1-2세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1538) |       | 전업모(N = 1102) |       | 취업모(N = 436)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엄마     | 98.6         | 20:28 | 98.5          | 20:35 | 99.1         | 20:10 | 1.64    |
| 아빠     | 50.8         | 4:10  | 50.5          | 4:17  | 51.6         | 3:51  | 1.42    |
| 조부모/친척 | 21.1         | 4:40  | 19.3          | 4:13  | 25.7         | 5:33  | -2.24*  |
| 교사/도우미 | 2.0          | 4:15  | 1.4           | 2:26  | 3.7          | 5:57  | -3.34** |
| 혼자     | 8.9          | 2:33  | 9.3           | 2:39  | 8.0          | 2:16  | 0.77    |

\* p < .05, \*\* p < .01

〈표 15〉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말 함께 한 사람의 비율과 시간량 : 만 3-4세

(단위: %, 시간: 분)

| 활동     | 전체(N = 570) |       | 전업모(N = 391) |       | 취업모(N = 179) |       | t     |
|--------|-------------|-------|--------------|-------|--------------|-------|-------|
|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평균 시간 |       |
| 엄마     | 98.2        | 18:18 | 98.5         | 18:10 | 97.8         | 18:35 | -0.77 |
| 아빠     | 58.4        | 5:06  | 58.8         | 5:13  | 57.5         | 4:55  | 0.47  |
| 조부모/친척 | 19.5        | 4:58  | 19.4         | 4:46  | 19.6         | 5:25  | -0.71 |
| 교사/도우미 | 6.7         | 3:35  | 6.9          | 3:36  | 6.1          | 3:32  | 0.06  |
| 혼자     | 12.3        | 2:33  | 14.3         | 2:45  | 7.8          | 1:45  | 1.65  |

많고, 친척과 보내는 시간은 더 적었다. 만1-2세아의 경우에는 대리양육자와 보낸 시간에서 차이가 났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의 자녀들이 할머니나 친척, 교사나 양육도우미와 보낸 시간이 전업모 자녀들에 비해 더 길었다. 그러나 만3-4세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차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양태 분석을 통해 아동들의 하루일과를 파악하고, 아동들의 하루일과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영유아기 아동들의 하루일과가 성인이나 청소년들에 비해 단순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동의 하루일과 역시 수면과 식사를 포함한 생리적 시간, 여러 가지 놀이 활동과 교육, 매체 이용, 어린이집/유치원/학원가기, 어른활동 따라가기와 이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얼마나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아동들의 연령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0세, 만1-2세, 만3-4세 시기를 비교해보았을 때, 수면, 식사, 위생 등의 생리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만0세아 집단에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였다. 아동들의 놀이활동도 연령에 따라 달라서, 장난감 없이 노는 비율은 만0세아에서 가장 높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비율은 만1-2세에서 가장 높으며, TV, 비디오,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해서 노는 시간은 만3-4세에서 가장 높았다. 아동들이 대리양육되는 방식도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률은 연령집단에 따라 각각 26%, 28%, 32%였는데, 전업모와 취업모 자녀들이 주중에 보육기관에서 활동한 행위자 비율은 만0세아가 각각 2%, 7%, 만1-2세아가 10%, 29%, 만3-4세아가 63%, 83%로 나타나 취업모의 자녀들이 기관이나 시설에 다니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완정(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만2세까지는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경향

이 높고, 만3-4세아는 기관에 다니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중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아동들의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들의 수면시간은 소아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수면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소아과의사나 발달학자들이 권장하는 하루 총 수면시간의 경우 6개월 아동이 15-18시간, 12개월 아동이 14-16시간, 24개월이 12-14시간, 30개월이 13시간, 4-5세가 10-12시간이다(소아가정간호백과, www.koreapediatrics.com).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조사된 아동들의 수면시간은 권장시간보다 약 한 시간 정도 적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3번째로 늦게 자는 국민이며, 일본, 인도와 함께 3대 수면 부족 국가에 속한다(양광익, 2009).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국, 유럽, 일본의 청소년들에 비해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이 짧다(김기현 외, 2009, p.56).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짧은 수면 시간이나 패턴이 영유아기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들의 생활양식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들의 퇴근시간이 늦거나, 영유아기 자녀를 동반하여 야간에 외출을 하면 자녀들의 수면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영유아기 시기의 수면은 특히 건강한 신체발달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이므로 이러한 생활양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유아기 아동들의 이동시간에 대한 결과도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이다. 만0세 아동의 약 30%, 만1-2세 아동의 48%, 만3-4세 아동의 52%가 하루에 이동하는 시간으로 1시간-1시간 30분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의 생활세계가 가정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일반적인 통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아동들 중 일부는 어린이집, 학원 등에 가기 위하여 이동을 하겠지만, 행위자 비율로 보면 이동비율이 어린이집/유치원 비율보다 더 높으므로 많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목적지를 함께 조사하

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아동들의 이동 빈도와 동선에 대한 조사와 그 시사점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의 생활 패턴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고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취업한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고 대리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결과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리양육자와 보내는 시간 외에도 취업모의 자녀들은 주중 수면시간이 전업모 자녀들에 비해 더 적었다. 어머니들의 출퇴근시간이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리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업모 자녀들의 야간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주중에 비해 수면시간이 늘어나서 취업모와 전업모 자녀 사이의 차이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기상시간은 주중보다 주말에 더 늦춰져서 수면시간이 길어진다(김현진, 2009). 취업모 자녀들의 주말 수면시간이 증가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모와 자녀의 생활 패턴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상시간이 늦춰지면서 자녀들의 수면시간이 증가하는 것이다.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상 역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주중에 자녀가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대신 할머니,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같은 대리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을 볼 때,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량은 전업모나 취업모나 상관없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나 기타 친척과 보낸 시간량이나 비율은 여전히 취업모 자녀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의 동거형태에 의해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 자녀를 돌보는 친인척과 긴밀한 상호작용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다. 즉, 어머니가 취업한 가족들은 할머니나 친척과 함께 살거나 더 가까이 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하지 않는 주말에도 더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거나, 평소 자녀를 돌봐주는 할머니나 친척과 더 친하기 때문에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에 자녀들이 친족관계망 안에서 더 빈번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취업모의 자녀들은 주중에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비율이 약간 더 높고 그 시간도 더 길었다. 대신 취업모 가정의 아버지들은 주말에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전업모 가정의 아버지보다 적게 나타났다. 즉,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버지들이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양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취업모 가정의 아버지들은 주

중에 부인을 대신하여 자녀와 시간을 좀 더 보내는 대신 부인이 집에 있는 주말에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선택적'이라고 한 이영미, 민하영(200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취업모 가정의 아버지-자녀 시간이 어머니-자녀 시간에 상보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아버지-자녀와의 시간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어머니-자녀와의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시간을 내지 못할 때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보완적으로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집에 있는 주말에는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한다. 이에 비해 전업모 가정의 아버지들은 주중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대신 주말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보한다. 전업모 가정의 아버지들은 주중에 활동을 같이 하지 못하는 대신, 주말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집중적이고 보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패턴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아동들이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사실 역시 이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영유아기 아동들의 경우, 주중 아버지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70%가 넘었으며, 주말에도 약 40-50%의 아동들은 아버지와 같이 한 활동이 없었다. 가족생활보다는 직장과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사회문화적 압력이 아버지들로부터 가족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아동들에게도 아버지와 상호작용할 시간을 빼앗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일과 양육에 모두 능숙한 슈퍼대디의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들이 아버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양은 많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소득 수준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영미, 민하영, 2006).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비교적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은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전체 아동들이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아동들의 생활패턴을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실태 파악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대신 기술 통계 결과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생활시간의 측면에서 살펴본 영유아기 아동들의 생활은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교적 생리적 활동이나 놀이 활동의 비중이 큰 영유아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생활 범위와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생리적 활동인 수면시간의 양조차 차이가 난다. 주중 일과의 차이는 주말 일과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중에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도 다소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차이

들이 축적되어 아동들이 서로 다른 생활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발달적 결과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아동들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어머니의 취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직종, 근무조건 등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여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양육도우미와 보낸 시간은 총량만 조사하고 세부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 아동들의 생활시간을 파악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강인자, 김혜연(2005).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시간 사용 및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9(4), 1-19.

김기현,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 최동선(2009).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이경상(2006). 청소년 생활시간 사용실태 및 변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06-R14.

김정희, 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1), 115-129.

김현진(2009).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서머타임 도입 계획. **녹색성장시대!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위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자료집**, 1-13.

류지수(2007). 가구특성과 남녀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447-452.

문혁준(200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박민자, 손문금(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배지희, 황인애, 탁옥경(2007). 영유아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전업주부의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225-254.

소아가정간호백과. <http://www.koreapediatrics.com>

손문금(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시간의 성격. **통계연구**, 8(2), 23-58.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1.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연구보고서 2005-3.

양광익(2009). 서머타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녹색성장시대!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위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자료집**, 75-88.

이규용, 남재량, 박혁, 김은지(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영미, 민하영(2006).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기질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93-101.

이영환, 이수재(2007).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19-25.

이완정(2009). 취업모의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과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17-126.

장영은(2006). 영유아기 시기의 어머니의 취업이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9), 89-101.

진미정(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1.

채로,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최남숙, 유소이(2002). 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가사노동, 여가, 과외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1-16.

통계청. <http://www.kostat.go.kr>

Crosnoe, R., & Trinitapoli, J.(2008). Shared family activities and the transition from childhood into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1), 23-48.

Folbre, N., Yoon, J., Finnoff, K., & Fuligni, A. S.(2005). By what measure? family time devoted to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42(2), 373-390.

Hofferth, S.(2003). Race/ethnic differences in father involvement in two-parent families: Culture, context, or Economy? *Journal of Family Issues*, 24(2), 185-216.

Sandberg, J., & Hofferth, S.(2001). Changes in children's time with parents: United States, 1981-1997. *Demography*, 38(3), 423-436.

Statistics Finland(2008). [www.h2.scb.se/tus/tus](http://www.h2.scb.se/tus/tus)

접 수 일 : 2010년 3월 29일  
 심사시작일 : 2010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9일